

주입식 강의로부터의 탈피

유 응 교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수직에서 수평으로

필자는 현재 건축공학과에서 '건축 계획학 I, II'를 강의하고 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오면서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의 교육이 구태의연하게 주입식 강의로 일관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오다가 지난 '86년부터 수업의 방식을 대폭 전환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 문화는 수직 문화의 틀 속에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서구의 수평적 사고에 의한 문화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교육 현장에서도 토론식 문화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토론식 강의는 생각만큼 잘 되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직 문화 속에서는 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 초·중·고를 거쳐 어려서부터 활발하게 토론식 강의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래도 대학에서 한결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은 거의 주입식 일변도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국의 M.I.T.에서 연구 교수로 있을 적에 그곳 대학생들의 수업 형태를 직접 보고 참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받았던 교육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서구의 수평적 문화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간격이 없이 스

럽없이 발표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예사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어딘가 어색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주입식 강의로 일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일정한 수로 나누어 조를 편성한 다음 각 조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여된 과제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이 넘는 현실에서는 애로가 따르기 마련이다. 적당한 숫자는 2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실 책상 배치도 교단을 바라보는 일률적인 배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6~10명 정도가 둘러앉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절충식 형태로 해당 학생이 교단에 나와서 발표하고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료를 정리하고 소화해서 유창하게 잘 해주면 그런 대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준비가 소홀히 되었을 때 상당히 무기력한 수업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표자의 표현 미숙과 우리말 사용의 부적절성에 대해 주의와 지적을 하는 일도 많게 된다. 뿐만 아니라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질문이 있어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데 질문이 거의 없으면 활

기찬 수업이 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질문을 제대로 잘하는 것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세 시간의 수업이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토론하고 나머지 두 시간은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서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설명하고 이들의 건축 철학을 영문으로 요약



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정도의 변화 있는 수업을 토론식 강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주입식 일변도의 강의로부터 탈피하고 토론식 강의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 속의 대학을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는 한 영원히 낙후된 대학 교육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흥미와 관심의 유발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며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강의든지 골치가 아프고 어쩐지 그 강의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 강의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경상대의 조재경 교수가 공업 수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개발한 교재다. 누구나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여 피하려고 하는 수학시간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만화를 이용한 것이다.

네 권의 교재를 만화로 그려서 오버헤드 프로젝터로 비춰 가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강의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조교수와 통화를 하고 그 교재를 출판사로부터 입수하여 우리 대학 수학 담당교수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와 같이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대학 교육을 개선하지 않고는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또 하나의 예는 제주도의 대기 고등학교 홍정숙 선생님의 열린 학습 강의다. 이 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열린 학습'을 적용하여 분단을 나누어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계학생이 거의 없어지고 흥미와 관심 속에 재미있는 수업을 한다는 방송의 보도를 접하고, 역시 홍 선생님과 연락을 하여 그 교재를 입수한 적이 있다. 이것 역시 지리 담당교수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하였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학생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문계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명문 학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교육부 차관에게 회의석상에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더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매주 건축물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발표를 시켰다. 물론 학생들이 은행이나 미술관, 병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의 현지 답사나 실측 조사를 할 때 관계자로부터 냉대를 받거나 관계자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이 애로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문서를 지참하거나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한 후에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었고, 사회의 인식도 이제는 학생들이 연구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데 대하여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건축계획 I'에서는 이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두 시간에 걸쳐 발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시간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평면계획과 입면 계획 도면을 그려내도록 한 뒤에 일일이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해주게 되는데, 채점시간 관계로 항상 다음 주 첫 시간에 발표에 앞서서 평가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건축계획 I'은 1학기에 진행하고 '건축계획 II'는 2학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2학기에는 건축가의 작품과 그들의 건축 이념이나 철학적 사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연구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물론 각 조에서는 이러한 모든 보고서를 전 학생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슬라이드나 사진은 시청각 기자재를 통하여 발표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은 안타까우나 현재로서는 특별히 개별적 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긍심의 고취

건축과에서는 흔히 학생들에게 건축 철학을 가지라고 교수들이 주문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건축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강의가 설강되어 있지 않다. 대학원 과정에서 건축 계획을 전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평론이나 이에 유사한 과목으로 건축가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있을 뿐이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이들이 사회에 배출되어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설계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그들이 과연 나름대로의 건축 철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건축 계획을 위한 건축가의 철학이나 사상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 무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는 일부러 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해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여 발표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보람있는 일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 작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그 작가가 선대에서 받은 영향과 후대에 미친 영향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조에서 발표한 건축가들의 계획개념이나 사유체계를 듣게 되면 한 학기 동안에 적어도 12명의 건축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매우 유익한 수업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우리들은 지방 대학 학생들에 대하여 수능 성적을 예로 들어 소위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 학생들보다 열등한 학생으로 취급하기 쉽고, 그들 스스로도 열등감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고 차원 높은 연구 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열등감은 자연히 소멸되고 오히려 높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예컨대, 각 조에서 연구 대상이 된 건축가 중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방 대학이라고 해서 뉴욕이나 파리,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와 접촉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게 함으로써 높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 과정을 거쳐 수업에 임하고 지금은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깨를 펴고 활발하게 자기의 건축세계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놓이더라도 그

것을 극복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수업을 통하여 배양시켜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대학원 학생에게나 가능한 것이라는 선입견은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들이 건축사가 되어 작품 활동을 할 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들만의 건축사상을 구축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우리 나라 건축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대체로 주입식 강의는 학생들 스스로를 수동적인 생활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반하여 과제를 계속 부과하고 토론이나 발표를 유도하게 되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매사에 적극적 사고를 갖고 대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재언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축계획학Ⅰ'에서 부과되는 각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발표와 '건축계획학Ⅱ'에서 발표할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조사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의실에 나와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수가 강의해 주는 대로 듣고 끝나는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재미와 흥미

도 없이 안이하고 나태한 자세로 그야말로 소극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모든 교수들이 여러 가지로 과제를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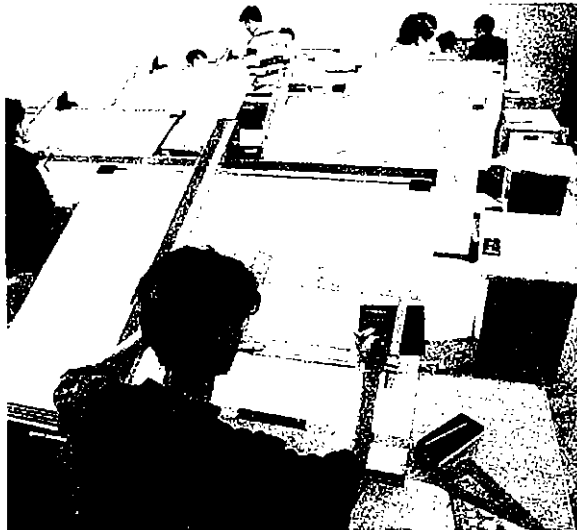
눈코뜰새 없이 바쁜 대학 생활을 통해서 맘 홀리는 젊은이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진실로 대학 생활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익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면 될수록 국가의 장래는 보다 밝으리라 확신한다. 물론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의 과제를 복사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속임수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학생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과제의 검사에 대해 교수는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 무엇보다

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복사해 내도 되는 풍토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교수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과제 부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가의 공정성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를 하는 일은 교수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평가를 공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어서 될 수 있는 한 객관적



인 자료에 입각하여 채점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문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선 객관식 문제를 추출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시험을 치르고 각각 40점씩 80점을 배점하였다. 나머지 20점은 과제물의 이행 여부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부과하였다. 특히 과제물 검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생이나 조교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었다.

학생들이 재학 중에 치르게 되는 건축기사 시험에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주관식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체계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번 출석을 부르게 되는데 대체로 결석하는 학생은 없는 편이었다. 처음 몇 번은 결석하는 학생의 경우 즉시 조교로 하여금 가정에 전화를 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뿐 아니라 교과서 중심이 아니고 많은 새로운 참고도서에서 강의와 발표가 이루어지므로 빠지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일주일 세 시간 중에 한 시간이라도 빠지게 되면 1점씩 획득한 평가 점수에서 감산을 하므로 출석 점수도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의의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끝없는 여로

대학의 강의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끝없는 먼 여행길을 떠나는 것처럼 가슴 설레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일일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교수 자신이 엄청난 땀을 흘린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일일이 보여줘야 하는 각종 슬라이드도 2만여 장을 준비해야 하고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두세 권의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20여 명의 작가에 대한 철학적 사상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적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들이 진실로 세롭고 경이로운 지식과 지혜의 광장으로 들어설 때 빛나는 눈빛과 지적 호기심으로 충만된 모습을 대하게 되면 그때 교단에 선 교수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강의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은 교수들 누구나 체험했으리라 본다.

지상에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가는 우주에 떠 있는 지구 표면의 조각가라고 비유해도 좋을 것이다. 위대한 지구의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세계가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고 맑은 인간적인 체취를 갖고 사물을 사랑하는 내재적인 힘을 배양해야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언제나 건축과 음악, 건축과 시 그리고 건축과 조각에 대하여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진실로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계도시키고 있다. 특히 '95년도에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집을 출간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시심이 싹틀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건축과 시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축가가 무슨 시를 쓰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는 제대로 건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이 갖고 있는 리듬과 반복, 상징, 비유, 은유의 요소를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한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말을 우리는 재음미해 보아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베토벤으로 격찬 받고 있는 그리스 태생의 음악가 아니의 연주 실황을 첫 시간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영혼 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자리잡도록 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내한 공연 시에 야니에게 시를 바치고 야니의 음악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영혼의 심층부에 커다란 자극을 주고 있다고 확신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반드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교육하기 위하여 지나친 강박관념에 빠져서 급급해 하지 말고 학생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들의 심성에 새로운 불빛이 비취도록 특별한 연출을 시도하며, 수업을 멋지게 유도하고 수업에 한층 흥미와 관심을 갖고 끝없는 애정을 쏟을 수 있게 하는 것

도 강의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는 측면에서 덧붙여 후기에 대신하였다. **▶▶▶**

유응교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I.T에서 방문교수로 일 년간 연구한 바 있으며 전북대 학생처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신 건축섬계제도 및 환경설계」, 시집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와 칼럼집 「전북의 꿈과 이상」을 펴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농촌 정주 Model의 설정에 관한 연구」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